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북한은 왜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감행했을까.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최대 현안은 3대 세습 체제 구축이 아니라 핵 무장을 통해 주체 국가로 거듭나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것일지 모른다.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라

중국을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필연적으로 일본이 핵을 갖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높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런 추론과 진단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착각과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북한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핵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고, 뒤이어 연평도를 기습 포격했다.

이런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북한은 저항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

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리를 해서라도 2012년까지 핵 무장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의 건강 약화와 경제난과 대량 탈북 등으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북한은 곧 망할 것이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김정일의 체제 장악 능력, 당, 군 공간기구의 통제력,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포함한 북한의 통제 역량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말보다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단합된 모습으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區 경제조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오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자치구 간 경제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위기감 때문이다.

18대 총선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0만4000명, 상한선은 31만2000명이다.

사실 국회의원 없는 동구만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동구는 광주의 정치 1번지이자 도시의 상징이 아닌가.

광운대 시장이 최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국회의원 시절 뼈저리게 느꼈으며,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려면 북구와 남구의 일부 등을 동구와 서구로 편입

이제 자치구간 경제조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선 4년 전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의 동구 편입이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무산됐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자치구간 합의,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의원 등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광주시와 정치권의 대응적인 역할을 당부한다.

바닥권 광주·전남 초등학교 이대로 둘 건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인어서 충격이다.

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하위 전국 20개 지역에 전남이 무려 14곳이나 포함될 정도다.

특히 전남의 학력수준 미달은 농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으나 교육여건이 양호한 광주에 학력미달 초등학교가 타지역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는 놓고 '졸세우기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학력 저조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학교에 맞는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광주시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서 앞으로 점포 개설 등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우리 사회에선 이런 역할 자체가 그를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맹목적인 악마의 옹호자를 두고 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 '인텔'은 자위고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하는 '건설적인 대결(confrontation)'을 적극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

전남초등 교육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주는 등 학업성취도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학력저조 현상은 여전히

대로 양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無等鼓

중세 가톨릭에서는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라는 직책이 있었다. 그에겐 새로운 성인 후보의 오점을 꼬치꼬치 파고들어 반대하는 역할이 맡겨졌다.

곤 했다. 세종대왕이 토론 때마다 반대만 하는 재상 허조(1369~1349)를 골라지 내치지 않고 의견을 구했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내기베이터



오늘날에도 여러 기업이 창조적인 토론을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악마의 옹호자를 두고 있다.

복종을 강요하는 리더들이 아직 많다. 정책이나 의견에 대한 다른 견해까지 리더 자신에 대한 반대는 아닌데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행이 걸림돌이다.

다양성 제도만 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존슨앤드존슨'은 "다름이 성과를 낳는다"는 모토 아래 '최고 다양성 관리자(CDO)'를 두고 있다.

내비게이션(navigation)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차의 동승자처럼 육박자르기 일 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이 자신의 잘못을 신하들이 비판하게 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언(求言)'을 하

미국은 유수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은 최근 '내기베이터'(navigato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이런 리더를 비꼰다. 혹 나라를 두고 하는 말 아닌가 돌아볼 일이다.

의로 칼럼

윤장현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의학 분야를 담당할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한다. 안과 치료 역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신기술로써 개인의 맞춤형시력교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력교정술의 빠르고 획기적인 진보는 엄격한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기준보다 흔들어 놨다.

아이리시스의 장점은 훌륭한 시력 교정 결과뿐만 아니라, 라식의 부작용으로 가장 크게 꼽혔던 '야간 빛 번짐'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라식수술도 과학이다

빛 번짐 현상은 눈을 구성하는 수정체와 유리체, 망막 등의 '광학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빛의 뒤틀림 현상과 지문만큼 다양한 개개인의 각막 굴곡의 값(즉, 곡률수치)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 채 교정수술을 하면서 생긴 부작용

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시력 문제점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해내어 맞춤형교정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NASA의 안과분야 컨설턴트 Steven C. Schallhorn 박사는 2007년에 발표한 'Corneal Refractive Surgery'라는 제목을 가진 프리젠테이션에서 'Femto-second Laser'와 'Wavefront-Guided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방대한 테스트와 최상의 결과들에 주목했다.

이제는 아이리시스를 통해 고위수차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NASA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기술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펄토세컨 레이저'는 수술시 각막을 깎는 도구가 칼날에서 레이저로 바뀌면서 두께를 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m) 단위로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Wavefront-Guided 테크놀로지'는 안구 전체의 수차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어 진정한 맞춤형 라식(Customized-Wavefront)을 실현할 수

경험과 숙련이, 최첨단 장비 등과 조화를 이뤄야만 환자에게 최상의 수술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타지역서 온 대학생들에 교통비 할인 지원 어떨까

(이인애와 원정)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타지역 학생에게 가장 큰 부담은 교통비다.

에 문의한 결과 조합 측이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대학생 한 명이 그 지역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상당하다. 특히 타지에서 온 학생일 경우 거주지 등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하기 때문에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보다 더욱 많은 비용을 지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조그만 혜택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학생들이 여러 학교를 저출입할 때는 작은 인센티브가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 동서울터미널에서 광주행 버스를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강릉·삼척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교통비의 32%를 할인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회현실 속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심성·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기고

이홍의



최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가 지역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입점저지대책위와 정말 마음을 열고 수차례 대화를 해왔고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법의 현실은 엄정하였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는 지난 2월초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중소상인 보호와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다행히 광주시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서 앞으로 점포 개설 등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북구 대형마트 허가에 대한 소회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또다시 이를 반려하면서까지 대형마트 입점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레저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했고 이러한 시의 발 빠른 대처가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베품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축주는 구청의 처분에 반발하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지역상권 보호의 당위성과 인근 학교의 학습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7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하였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지난 10개월여 동안 두 차례의 건축허가 반려와 세 차례 법원 판결을 받은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은 지역경제 보호와 인근 학교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며 고민하고 노력해왔다.

특정영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소상인들로서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건축을 반대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대형마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특히 대형마트 업체들도 상생과 양보로 중소상인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노광용·광주시 북구 용봉동

외국인 100만명 시대... 다문화가정 편견 버려야

해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기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파부색이 다르고 우리말 표현이 서툴러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 notice about the 'No Equal Drum' column.